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EXTRAORDINARY BIRDS
가제 : 새가 될 거야
저자 : Sandy Stark-McGinnis
출판사: Bloomsbury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9년 4월 20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언젠가 새로 변신하여 하늘을 날게 될 거라 믿는 고아 소녀가 가족과 우정, 집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과정을 시처럼 그린 데뷔 소설
- * 홀리 골드버그 슬로안의 『Counting by 7s』, 알리 벤자민의 『The Thing About Jellyfish』, 린다 물랄리 헌트의 『Fish in a Tree』 팬들이 좋아할 만한 상상력 가득한 이야기

나무 타기가 취미고 아침 식사로는 또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보다 해바라기 씨를 한 대접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아이, 디셈버의 등에는 꽤 큼직한 흉터가 있다.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 알 수 없지만, 디셈버는 언젠가 그곳이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하다가 불쑥, 날개가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머지 않아 새로 변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유롭게 날아서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오직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시인으로도 활동해온 작가는 새가 되기를 꿈꾸는 열한 살 소녀 디셈버가 이 굳건한 믿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간직하면서 진정한 ‘집’을 찾아 방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엄마가 떠난 후, 홀로 남은 디셈버는 사회복지사 손에 이끌려 이 집 저 집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고 여러 번 파양된 경험은 이제 어딜 가도 오래 머무르지 않겠구나, 처음부터 단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관 없다고, 어차피 곧 하늘을 날아다닐 테니까 신경 쓸 것 없다고 되뇌며 새가 될 날만 기다리던 디셈버에게 어느 날 뜻밖의 인연이 찾아온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좀 오래 머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굳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처음으로 낯선 희망을 품게 된 엘레노어는 디셈버의 ‘집’이 될 수 있을까? 순수한 상상력과 가슴 아픈 현실이 절묘하게 결합된 영동한 소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사실 디셈버가 여러 번 파양된 건 잘 돌봐주기로 약속한 양부모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버드 걸>이라는 제목으로 새가 되려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비롯해 하늘을 잘 날기 위해 필요한 기술, 새의 습성 등 새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매일 꼼꼼히 기록하고 읽고 다듬는 디셈버는 그 규칙과 새의 특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런 행동이

이해도 안되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디셈버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전 곧 새가 될 거라서요’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에서는 양부모가 뒷마당에 가득 쌓인 낙엽을 힘들여 빗질해서 정리해두면 몰래 나가서 다시 마당에 흩뜨려 놓고, 두 번째 집에서는 학교에서 여학생을 괴롭힌 못된 남자아이 곁에 새처럼 몰래 다가가서 똑같이 괴롭혀주고, 위험하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뛰어내린 행동들이 다 ‘새다운’ 행동이라고 변명할 수 없었다. 하늘을 날려면 몸이 가벼워야 하므로 밥도 거의 안 먹으려 하는 행동 역시 양부모들에게는 속이 터지는 일이었다. ‘왜 그랬니?’라고 물으면 입을 꼭 닫아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다 보니 벌써 여러 번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떠나면서 남긴 책, <새에 관한 완벽한 가이드>와 그 첫 페이지에 남긴 엄마의 메모, ‘하늘을 날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말, 디셈버에게 중요한 건 그 두 가지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디셈버가 스스로를 새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의심은 해도 철저히 비밀에 부친 디셈버의 영리한 작전 덕분에 확실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아동 심리분석가 선생님과 상담할 때면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닌지 알아보려고 던지는 질문들을 귀신 같이 알아채고 ‘정상적인’ 대답을 할 줄 아는 똑똑한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남몰래 새가 될 날만 기다리는 시간들은 결코 즐겁지 않았다. 엘레노어를 만난 건 바로 그런 시기였다.

사람의 목소리에 가장 어울리는 색깔을 매치시키는 버릇이 있는 디셈버는 널찍한 뒷마당을 가진 엘레노어와 처음 만난 날, ‘파란색’을 떠올렸다. 디셈버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었다. 엘레노어는 다른 양부모들과 참 많이 달랐다. 밥을 먹든, 외출을 하든, 집안 일을 하든 딱 한 번만 다정하게 제안할 뿐 디셈버가 싫다고 하거나 망설이면 절대 두 번 권하거나 강요하는 법이 없었다. 게다가 엘레노어는 새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버드 걸>을 쓰면서 새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디셈버가 인정할 만큼, 저 멀리 하늘을 나는 새의 실루엣만 보고도 종류를 맞히고 새의 습성도 꿰고 있었다. 알고 보니 엘레노어는 야생동물 구조대에서 틈 날 때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는, 동물과 자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늘 그렇듯 시큰둥했던 디셈버는 어딘가 괴짜 같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엘레노어에게 조금씩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상대가 진심으로 날 걱정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아주 낯설지만 디셈버가 가장 원했던 그 느낌을 엘레노어가 선사했기 때문이다. 함께 파랑새를 숨죽여 관찰하고, 함께 숲 속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구하면서 디셈버는 엘레노어의 집이 동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 못할 상처가 치유되고 어린 아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을 이겨내고 비로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린 아름다운 이야기다.

<저자 소개>

샌디 스타크 맥기니스(Sandy Stark-McGinnis)는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로 5학년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인, 단편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Quercus Review」, 「In the Grove」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PICKLEWITCH AND JACK
가제 : 피클위치와 잭
저자 : Claire Barker(글), Teemu Juhani(그림)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최고의 브레인, 학교 최고의 모범생과 베스트프렌드가 되고 싶은 말썽쟁이 마녀의 이야기 - 유쾌하고 멋진 일러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3부작 시리즈**

외딴 언덕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에 엄마와 아들, 두 식구가 새로 이사 온다. 영재들만 가는 유명한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뽑혀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게 된 잭은 이삿짐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묘한 느낌에 사로 잡힌다. 먼 길을 달려오느라 벌써 어둑한 밤이 되었고 높은 언덕 위에 푹 떨어진 집이라 주변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잭은 미신이나 귀신 이야기를 믿는 타입이 아니었다.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과학도 수학 못지 않게 잘하고 영어 성적도 엄청나게 높은 우등생답게 모든 일에는 논리가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왠지 오싹한 기분을 애써 털어내며 잭은 새 집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잭이 느낀 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조금 떨어진 거대한 나무 위, 굵은 나뭇가지 위에 잭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잭과 엄마, 인부들이 이삿짐 내리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평퍼짐한 무명 바지에 끝이 뾰족한 까만 색 모자를 쓰고 활활 타오르는 듯한 붉은색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컬을 이룬 모습, 딱 봐도 영락없는 마녀인 이 소녀의 이름은 피클위치다. 원래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피클위치는 잭을 발견하자마자 이상하게 마음이 끌린다. 반듯하고 차분해 보이는데 그런 겉모습에는 드러나지 않는 엉뚱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케이크라면 환장하는 피클위치가 보기에, 잭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줄 수 있는 아이 같았다.

이사 온 첫 날 밤, 잭은 침대에 누워서도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공기 좋은 마을에서 보는 밤 하늘의 별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다. ‘언젠가 위대한 과학자나 우주비행사가 될 지도 모르는데, 그럼 아기처럼 근거도 없는 상상을 하느라 오들오들 떨면 안되지!’ 굳게 마음 먹은 잭은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 나와 커튼 쳐진 창문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커튼을 획 찢히자마자, 2층 창문 밖에 왜 여자아이 하나가 찰싹 달라붙어서 잭을 보고 있다! 뾰족한 검은 모자를 쓴 그 붉은 머리 소녀는 잭과 눈이 마주치자 소리까지 질러대기 시작했다. 기겁한 잭은 얼른 뒤돌아 엄마를 부른다. 하지만 깜짝 놀란 엄마가 잭의 방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괴상망측한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헛것을 본 것일까? 엄마는 잭을 토닥거리며 낯선 집이라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위로한다. 잭도 애써 엄마 말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그 괴상한 소녀는 다음 날, 등교 첫 날 아침부터 또 다시 나타난다.

간밤의 오싹했던 일은 그저 악몽이라 생각하고, 책은 잔뜩 들떠서 새 학교로 향한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책은 한 마디로 일약 스타였다. 아무도 못 푸는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풀어내는 책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친구들이 많았다. 영재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도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똑똑한 아이들만 가득한 새 학교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즐거운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던 그 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머리 위로 웬 통통한 비둘기가 나타나더니 공중에서 똥을 갈긴 것이다. 새 교복이 새똥으로 지지분해진 것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인데, 비둘기는 책의 손에 들려 있던 케이크 가방을 낚아채서 달아났다. 엄마가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정성껏 만들어준 케이크가 담긴 가방이었다. 책은 비둘기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길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들어선 비둘기의 뒤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온 책은 큰 바위 옆에서 낫익은 모자를 발견한다. 어제 창문 너머로 책을 보며 소리치던 그 여자아이였다! 게다가 그 아이는 비둘기가 훔쳐간 책의 가방을 열어 케이크를 우걱우걱 전부 먹어 치우고 있었다.

책의 케이크를 맛본 피클위치는 눈이 번쩍 뜨인다. 충격적인 맛, 계속 먹고 싶은 엄청난 맛이였다. 이런 케이크를 계속 먹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겠다고 결심한 피클위치는 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첫 날부터 지각할 까봐 울상이 된 얼굴로 학교에 간 책의 뒤를 따라 영재 학교로 간 뒤, 책과 같은 반에 새로 온 전학생으로 들어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피클위치의 뛰어난 마술 실력 덕분이였다. 몇 가지 주문만 외우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피클위치는 교실에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 순간부터 경악하는 책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모범생으로, 못하는 게 없는 아이로 늘 주목 받아온 책의 삶에 고난이 시작된 순간이였다. 3년 연속 빼앗겨본 적 없는 '전교에서 가장 분별력 있는 학생' 타이틀에 올해에도 도전할 생각이었던 책은 피클위치의 간섭 때문에 시작부터 큰 벽에 부딪힌다. 아예 책의 집까지 따라와서 엄마를 구워삶아 먹고 싶은 케이크를 뭐든 만들도록 시키질 않나, 점심 시간마다 책의 도시락을 빼앗아서 훌랑 먹어 치우고 책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 가게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다. 대체 이 꼬마 마녀가 정말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책을 따라다닐까? 사람에게 관심 혹은 호감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피클위치는 그런 감정을 생전 처음 느낀 책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뿐이지만 늘 질서정연하고 계획대로 살아가던 책의 삶은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 마녀의 베스트프렌드로 딱 찍힌 책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흘러갈까? 피클위치의 손에 이끌려 그 전까지 시도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모험을 시작한 책의 배꼽 잡는 이야기가 멋진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펼쳐진다.

<저자 소개>

클레어 바커(Claire Barker)는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판타지 시리즈 『Knitbone Pepper』가 있다.

티무 주하니(Teemu Juhani)는 핀란드 출신 일러스트레이터로 영국에서 만화가,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를 공부했다.